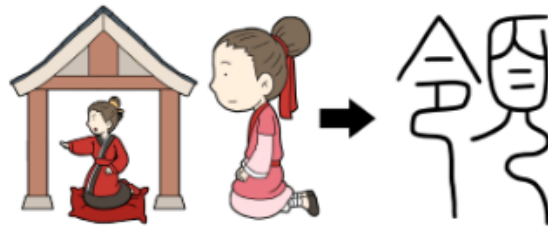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領

거느릴
령

領자는 '거느리다'나 '다스리다', '통솔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領자는 令(영령)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令자는 대궐 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군주를 그린 것으로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그린 令자 옆에 그려진 頁자는 군주 옆에 붙어있는 가신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領자는 사람을 거느리며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에서 '거느리다'나 '통솔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領

소전

領

해서

회의문자①



令

하여금
령(:)

令자는 '~하게 하다'나 '이름테면', '법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令자는 亼(삼합 집)자와 卩(병부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令자를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머리 위로 지붕이 亼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큰 건물 아래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큰 건물이라는 것은 나랏일을 하던 관청을 뜻한다. 令자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모습으로 그려져 '명령하다'나 '법령'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令

갑골문

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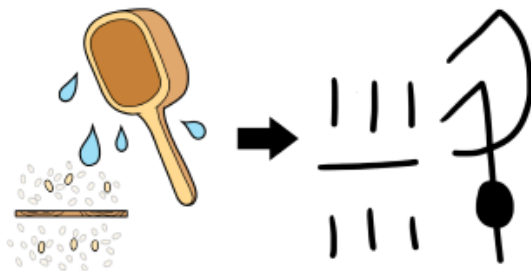
令

소전

令

해서

회의문자①



料

헤아릴
료(:)

料자는 '헤아리다'나 '되질하다', '수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料자는 斗(말 두)자와 米(쌀 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斗자는 쌀이나 액체를 담을 때 사용하던 국자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국자를 그린 斗자에 米자가 결합한 料자는 국자로 쌀을 퍼 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 나온 料자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국자 옆에 쌀을 𥽿 그려 용량을 헤아리고 있음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料자에서 말하는 '헤아리다'라는 것은 국자로 쌀을 퍼담으며 용량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𥽿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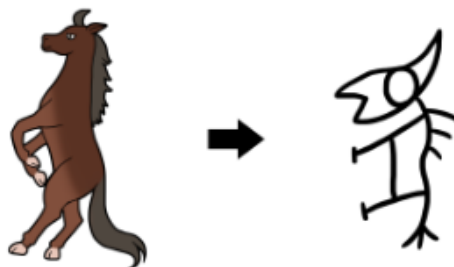
𥽿

소전

料

해서

상형문자①



馬

말 마:

馬자는 '말'을 그린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馬자를 보면 말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큰 눈과 갈기가 함께 𩇑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머리와 갈기는 간략화 되었고 해서에서는 다리가 점으로 표기되면서 지금의 馬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말은 고대부터 사냥과 전쟁에 이용되었지만 주로 먼 거리를 달리는 용도로 쓰였다. 그래서 馬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들은 주로 '(말을)타다'나 '가다', 말의 행위, 동작과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𩇑

갑골문

𩇑

금문

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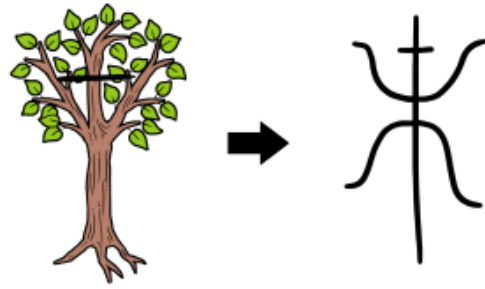
소전

馬

해서

5
-
35

지사문자①



末

끝 말

末자는 '끝부분'이나 '꼭대기'를 뜻하는 글자이다. 末자는 木(나무 목)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末자는 나무의 '끝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지사문자(指事文字)이다. 금문에 나온 末자를 보면 木자의 상단에 점이 찍혀있었다. 이것은 나무의 끝부분을 가리킨 것으로 '끝'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末자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未(아닐 미)자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末자는 나무의 끝부분이 길게 그려져 있지만 未자는 짧게 쓰고 있으니 이러한 차이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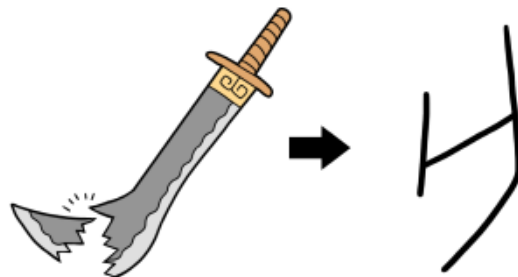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
-
36

상형문자①



亡

망할 망

亡자는 '망하다'나 '도망가다', '잃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亡자는 亠(돼지해머리 두)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돼지머리와는 관계가 없다. 亡자의 갑골문을 보면 칼날 부분에 획이 하나 ㄣ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칼날이 부러졌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칼날이 부러졌다는 것은 적과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亡자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의미에서 '멸망하다'나 '도망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亡자에는 '죽다'나 '잃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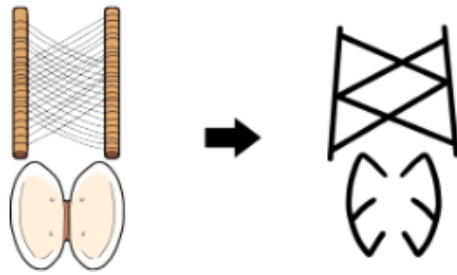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買

살 매:

買자는 '사다'나 '세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買자는 網(그물 망)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網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𦉳자로 바뀌게 되니 買자는 그물과 조개를 함께 그린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買자가 그물로 조개를 잡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에서 貝자는 '화폐'나 '재물'을 뜻하고 있으니 買자는 그물로 재물을 쓸어 담는다는 뜻이다. 買자는 그런 의미에서 '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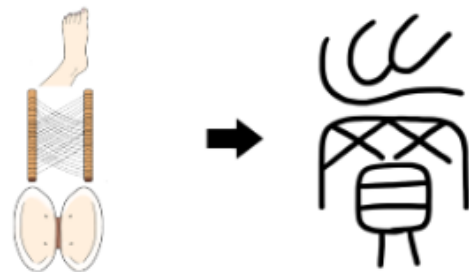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賣

팔 매(·)

賣자는 '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賣자는 買(살 매)자와 出(날 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賣자에 쓰인 士(선비 사)자는 出자가 잘못 변형된 것으로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出자가 쓰였었다. 賣자는 '사다'라는 뜻을 가진 買자의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고대에는 買자가 '사다'나 '팔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였었다. 사는 것이나 파는 것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해지면서 買자에 '나가다'라는 뜻의 出자를 더한 賣자가 '팔다'를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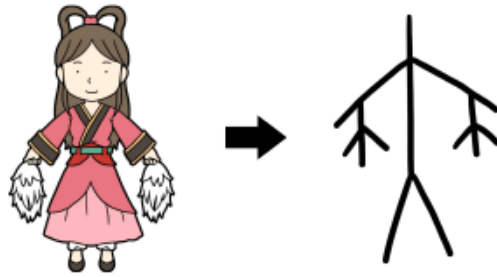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無

없을 무

無자는 '없다'나 '아니다',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無자는 火(불 화)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無자를 보면 양팔에 깃털을 들고 춤추는 사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춤추다'가 본래의 의미였다. 후에 無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 되면서 후에 여기에 舛(어그러질 천)자를 더한 舞자가 '춤추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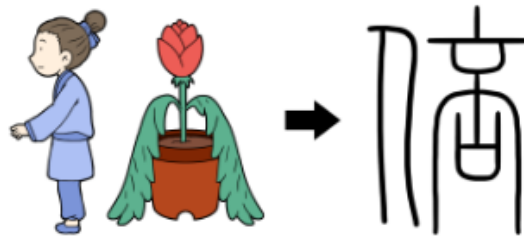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倍

곱 배(·)

倍자는 '곱'이나 '갑절',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倍자는 人(사람 인)자와 冫(침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冫자는 식물의 줄기 아래에 口(입 구)자를 그려 넣은 것으로 '침을 뱉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倍자의 어원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倍자에 쓰인 冫자가 본래는 冫(아닐 부)자가 변형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그래서 倍자는 冫자를 冫자로 해석하여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배반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 倍자에서 말하는 '갑절'이라는 것은 남을 배반하거나 반대하면 나에게서는 '갑절로 돌아온다.'로 해석될 수 있다.



소전



해서